

만 24개월 이상 어린이 대상 오감만족 놀이체험전

포천반월아트홀, 어린이 놀이체험전 상상놀이터 개최

포천반월아트홀에서는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24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오감만족 놀이체험전 상상놀이터를 개최한다.

보는 것에만 그치는 전시는 심심하다. 특히 작품의 감상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직접 만지고 느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놀이체험전 상상놀이터에서 가능하다.



포천반월아트홀에서는 7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24개월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오감만족 놀이체험전 상상놀이터를 개최한다.

상상놀이터는 어린이 체험전시 최초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해 예술적 감성, 사회적, 창의성까지 13가지를 얻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상대에게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전시는 모두 6개로 이루어진다. 우선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EQ(Emotional Quotient) 존(zone)', 색깔 공 속에서 헤엄치며 놀아보는 '상상놀이방'과 한지를 통해 시각과 촉각을 키우는 '바람의 숲'을 체험하며 자유로움과 즐거움은 두 배가 된다.

"CQ(Creative Quotient) 존(zone)은

즐거운 상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다람이방'과 고무찰흙을 조물조물 만지며 창의력을 키우는 체험 공간이다.

'거미의 숲'과 '잠미의 숲'으로 이루어진 'SQ(Sociability quotient) 존(zone)'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안 신체활동을 통한 성취

감과 유대감 등 직접적인 사회성을 길러준다.

포천반월아트홀은 이 외에도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하여 도자기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전을 개최한다.

조성민 기자 csbkkj@hanmail.net

韓國의 선비정신 · 109

나라를 위해 한 번 죽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나?



리효중 한국한시협회 포천지회장

윤홍은 삼학사(三學士) 중 한 사람인 윤공의 손자다. 윤공은 평소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당시 그의 고모는 흥문관 교리 윤석(尹奭)과 혼인하였는데, 고모가 아버지의 비석에 기록할 묘문(墓文)을 최명길의 손자인 최석정(崔錫鼎)에게 부탁하려 하였다.

그러자 윤공은 고모를 찾아가 말했다.

"최명길이 할아버지를 잡아다 첩나라에 바쳤고, 아울러 오달제와 홍익한 선생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자손에게 문장을 받아다가 어찌 아버님의 묘비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 최석정에게 편지를 보내 절교하였다.

경중이 병이 들었으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김창집, 이경봉 등 노론 4대인이 영조를 즉위시키려 하였다. 이때 최석정은 무옥(濔獄)을 일으켜 4대인을 죽인 후 경중을 모시고 결사의 맹세를 하려 하였다. 그러자 윤공은 이를 반대하여 최석정에게 말했다.

"나는 충신을 죽이는 회맹에 참여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는 신하다. 지금 칼을 들고 임금 앞에 앉아서 지킬 수 없는 임금을 섬기려 할 때 무슨 면목으로 갖근을 날리며 역적들과 더불어 피를 삼키며 맹세를 할 수 있으랴?"

그때 의조카인 조태역(趙泰儼)이 그를 염려하여 만류했다.

"만약 저들의 뜻을 거스르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외삼촌의 연세가 벌써 70인데 어찌 지난날 가졌던 원한 때문에 저자 아버님의 묘비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윤공이 웃으며 답했다. "나는 젊어서 나라의 은총을 받았고 이제 곧 늙어 죽을 것이네. 나라를 위해 한 번 죽는데 무슨 미련이 있겠나?"

"옛날의 군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쯤 의롭지 못한 일에 참여하였습다. 죽음을 받느니 차라리 저들과 뜻을 함께 하여 영화로움을 취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 때 윤공이 버럭 화를 내며 꾸짖었다.

"자네가 하찮은 이익 때문에 나를 가르치려 드는가!"

그러고는 집권 눈물 잡고 대꾸하지 않았다. 윤공의 사위까지 편지를 써서 회맹에 참여하라고 권하였으나 그는 그 편지마저 찢어버렸다. 이로 인해 그는 2년간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영조가 즉위한 뒤에야 그는

귀양에서 돌아왔다. 그러자 조태역이 한강까지 나와 맞았다. 그러자 윤공은 조태역을 돌아보고 웃으며 말했다.

"지난날 자네는 나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거라 말했는데 다행히 살아 돌아왔네. 장차 밝은 조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그 불행이 지금은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루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자 하인들이 그 말을 찾아올 것을 청하였다. 윤공이 허락하자 하인은 그 친척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 말은 이미 팔아버린 뒤였다. 이 말을 들은 윤공이 허허 웃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건강증이 심하여 말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찾아오도록 하였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윤공의 큰 도량에 탄복하였다.

윤 홍(尹 洪)

1655년(효종 6)~1731년(영조 7)

본관은 남양이며 자는 정원(靜源), 호는 정재(靜齋)이다. 1685년(숙종 11) 음보로 광릉참봉(光陵參奉)이 되었으며,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721년(경종 1) 능주 목사를 지냈다. 1722년에 신임사화가 일어나고, 그 공신의 회맹(會盟) 때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어 금산(金山)에 유배되었다. 영조가 즉위하기 직전 유배에서 풀려나 그 이듬해에 장악원정·군자감정을 거쳐 첨지중추부사를 지냈다.

뮤지컬 이야기

올 브리너(Yul Brynner, 1915~1985)의 <왕과 나(The King and I, 1951)>

한 사람의 배우가 죽기 전까지 그것도 동일한 배역으로 무대에 4,000번 이상 출연할 수 있을까? 연기 인생을 통틀어서 4,000번의 공연을 매일같이 하려면 약 11년이 걸려야 해낼 수 있는 기록인데 올 브리너(Yul Brynner)는 <왕과 나(The King and I)>라는 작품으로 4,525회라는 놀라운 공연기록을 세웠다. 12년 하고도 약 4개월에 걸쳐 출연한 대기록이다. 물론 1951년부터 1985년까지 34년 동안의 기록이다.

and Dolls)이 대성공을 거두었다. 1951년에도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장기공연에 돌입하고 있을 때 브로드웨이의 한 극장에서는 또 다른 명작의 막이 올랐다. <왕과 나(The King and I)>는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dgers)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Oscar Hammerstein II) 콤비의 여섯 번째 작품인데 1951년 3월에 초연되었을 때 올 브리너는 거의 무명의 배우로 과격적인 캐스팅이었다. 안나(Anna) 역을 맡은 여배우 거트루드 로렌스(Gertrude Lawrence)는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여배우여서 상대배우로서의 올 브리너의 기용은 당혹감마저 들게 했다. 원 배역의 무게감은 처음부터 무대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할 듯했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면서 올 브리너의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했고 그가 맡은 삼왕 몽쿠트(King Mongkut of Siam) 역은 이후 올 브리너 이외의 배우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다. 로렌스와 브리너의 콤비로 초연은 성공리에 끝을 맺었고 1,246회라는 공연기록을 세웠다. 다음 해에 토니상 수상식에서 <왕과 나>는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5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올 브리너는 아쉽게도 남우조연상(Best Featured Actor)을 수상했다. 그가 주인공이었던 관계로 그의 이름이 공연 타이틀 밑에 기록되어 있어 조연상에 만족해야 했다.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로렌스는 공연의 막이 오른 후 같은 해 5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우연의 일치로 올 브리너도 1985년

브로드웨이 버전 <왕과 나>를 끝으로 생을 마감하여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왕과 나>는 마가렛 랜던(Margaret Landon)의 <안나와 샴>(The King and I)을 토대로 한 뮤지컬이다. 1860년대 초 태국을 무대로 한 이 이야기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는 삼 국왕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역사상에 기초한다고 해서 공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작품 속에 나오는 국왕 몽쿠트는 태국 차크리 왕조(Chakri dynasty, 타이 가문)의 넷째 왕으로 일찍부터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수행한 국왕이었다. 젊은 미망인 안나는 삼 왕의 초청을 받고 아들 무이와 함께 왕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방콕에 도착한다. 처음 왕의 무례한 태도에 실망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려던 안나는 몽쿠트 왕의 자녀들을 보고 삼에 놀러와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안나는 가끔씩 문화적인 습관의 차이와 왕의 자기중심적인 면태도로 인해 왕과 충돌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왕의 인간적인 면도 발견하고 삼의 근대화화를 위해 노력하는 왕에게 묘한 애정도 느끼게 된다. 한편, 삼의 왕이 아닌 안나라고 호칭하는 딸이 영국인 왕의 귀에 들어가자 삼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이에 안나는 영국대사에게 상대한 연회를 베풀어 왕이 애민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자 제안한다. 안나의 주도하에 만찬은 성대하게 치러지고 만찬의 하이라이프인 영국은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진 림바마

의 공주 탐뎀에 의해 만들어져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하지만 탐뎀은 자신을 수행하고 온 사신과 사랑하는 사이다. 안나의 도움으로 연회 때 영어 톱스 캐빈을 각색한 탐뎀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왕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왕은 노예를 쫓던 왕의 죽음을 찬미하는 대목에서 크게 분노한다. 얼마 후 탐뎀이 그녀의 남자와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안나와 크게 언쟁을 벌이고 화가 난 안나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안나는 왕과 화해하고 계속 삼에 머무르며 황태자를 돌보아주고 약속한다. 왕은 황태자의 신년계획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뮤지컬 <왕과 나>는 1956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 올 브리너가 무대에서처럼 몽쿠트 왕 역을 맡아 안나 역의 데보라 커(Deborah Kerr)와 열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영화로 올 브리너는 아카데미 남관왕의 타이틀을 얻었다. 이 영화는 1999년에 주윤발과 조디 포스터가 콤비를 이룬 <애나 앤드 킹(Anna And The King)>으로 리메이크 되었다. 두 영화 모두 DVD로 감상할 수 있다.



유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러시아 태생의 배우 올 브리너는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풍미한 연기와 배우였다. 깊고 풍부한 목소리에 사발한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인 올 브리너는 비록 <왕과 나(The King and I, 1956)>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56)> 그리고 <황야의 7인(The Magnificent Seven, 1960)> 등의 영화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배우로서의 활동영역은 바로 브로드웨이였다. 그의 출세작이며 동시에 대표작이기도 한 뮤지컬 <왕과 나(The King and I)>는 올 브리너는 배우를 세상에 알려 준 작품이었다. 그는 1985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왕과 나>의 국왕 몽쿠트 역으로 출연하여 이 작품에 끊임없는 애정을 보였다. 1951년 <왕과 나(The King and I)>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1985년 리바이벌 공연까지 올 브리너는 4525회라는 전 무후무한 연기적인 출연횟수를 기록했고 그로인해 토니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50년대 브로드웨이의 흥행을 주도한 <아가씨와 건달들>(Guys

예/술/칼/럼

땡감

더러는 문인들이 문학의 근본 품성보다는 본질에서 변질되어 파생된 결과에 더 관심과 매력을 느끼는가 보다. 그것은 문학이 포용하는 미적 다양성 때문이 아닐까.

문학이란 결코 우리의 지성과 지식 내지는 다른 어떤 야심으로 정복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인간의 감성으로도 쉽게 함락되지 않는 무한한 창작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

다만 인간의 반복된 학습으로 창조된 신화일 것이요 또 그것을 깨트려 새로운 창작의 질서를 가꾸어 내는 것이다. 그것이 문학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문학의 행위가 인간의 허황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찢고 까 불려 대는 공허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글(詩)쓰기의 올바른 바탕은 말(언어)이 시(詩)이고, 시가 끝난 인간이면 죽는 것이다. 시인의 눈은 시처럼 칼날을 세우고, 시인의 손은 불의 향하여 들떠 이를 들어 시위를 당길 줄 알아야 한다. 시인의 연기(煙氣)가 어디 담배 발의 떡잎이던가.

시인이 손으로 쓴 시는 앞을 보고 쓰지만, 시인이 발로 쓴 시는 뒤를 보며 쓴다. 또한 문학의 길에는 지도가 없으며 이정표가

없다. 작품(詩)을 가득 풍주리에 담아 보라. 시의 값은 정가가 없다. 힐끗으로 팔거나 고가(高價)를 매기거나 공짜로 주어도 좋을 일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길은 끝없이 걸어서 항시 하늘과 맞닿는 지평에서야 하며 그때 비로소 하늘과 인간과 자연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땡을 밟고 흘러온 시냇물이 물레방아를 열심히 돌릴 때 우리 안방의 불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창작의 길은 부단히 샘물을 길는 것이다. 문학의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에 미(美)의 물고를 트는 일이며 서둘러 이르티 장(artisan)에서 탈출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주어진 말(언어)로 아름답게 풀어내어 사람의 궁극적 행복에 이르게 함이, 문학이 요구하는 위대한 숙제인 동시에 자기 성찰이며 결국은 인간 탐구의 길이 되는 것이다. 문학은 결코 인간의 산술로 풀 어지지 않는 깊고 묘한 셈이다. 그래서 문학의 길(시인의 길)이란 자연의 생명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드는 인간으로의 객(客)이며 신앙적 수도자가 된다. 곧 영원한 미학(美學)의 순례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문학의 길(시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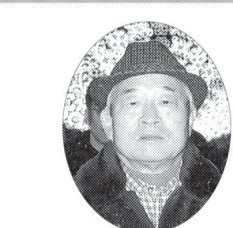
길)이란 철학 위의 십자가의 상징도 아니고, 하늘의 북두칠성도 아니며, 네거리의 신호등도 아닐 것이다. 셋길로 빠지는 화살표는 더욱 아니다. 오로지 시인(詩人)이어야 한다.

그럼, 자작시 <시과> 한 편을 감상해 보자.

오늘
비는
바람과도 일을 하다가
흙이 침실이다가
거리가 되어
우산이 되다
살이 되어
웃을 땀보다
물이 된다
숲 저쪽에는 물이 익는다
비로소 아침이다

- <시과> 전문 -
이제 가을이 울 것이며 땡감은 반드시 익을 거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발행인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 이야기> (242)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유창(兪)

조선 효종조 6년(1655년) 효종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직접 무재(武才)를 보아서 장원을 뽑았는데 유창(兪)이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조항(趙珩)과 함께 부사 뽑히어 일본으로 갔다.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가게 되자 효종 임금께서는 유창님의 가족에게 유사를 시켜 부모님과 가족에게 하사하는 특별한 눈요(褒料)와 약물을 유사를 시켜 보냈다. 유창통신사 가족을 아끼고 위

로하는 효종 임금의 배려였다.

효종 7년(1656년) 2월 일본으로부터 통신사 일행이 돌아오자 보고를 받은 효종임금은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일행 모두를 가사(加資:벼슬과 지위를 한 등급 높여줌)하였다. 조선통신사 유창은 조선시대 문인으로 일동면 유동리 사람으로 이 곳에 묻혔다. 자는 백구(伯圭), 호는 추담(柳潭), 운계(雲溪), 본관은 창원, 첨중추부사, 필의(必義)의 종손, 첨중추부사 용(溶)의 손, 첨정(僉正) 여해(汝楷)의 자이다.

1635년(인조13) 생원 시에 급제, 1650년(효종1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승정원 주서가

되었다. 효종4년(1653년) 칠월칠석날, 옥당에서 한림주서(翰林注書)등을 모아 놓고 춘방작률(春坊作律)하게 되었는데 주서로 있던 유창이 장원을 하여 효종임금께 상을 받았다.

효종 7년(1656년) 일본 통신사로서 공을 세우고 귀국하여 그 공로로 가져와서 5월에 승정원 승지로 특별히 제수 받았으며, 그 후, 충정감사, 우부승지, 강원감사, 예조참의, 좌부승지, 광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15년(1674년) 3월 왕비상을 당하여 중국(명나라)에 고부(告去)하기 위하여 고부사(告去使)로 임명되어 연경을 다녀왔다.

초대 漢詩

初庚郎事(초경즉사)



松園 李曉種 포천한시 대표

初庚夏日午長天(초경하일오장천)避暑人波道路連(피서인파도로연) 초복여름날 낮이 긴데, 피서인파는 도로에 이어졌구나.

乍爽風涼錄柳(사사풍량록류)時時驟雨灑紅蓮(시시驟雨灑紅蓮) 잠깐 잠깐 부는 상쾌한 바람은 녹류를 시원하게 하고, 때때로 내리는 소낙비는 흥편을 씻어 주느니라.

樓軒墨客研書處(루헌묵객연서처)槐蔭驪仙覓句筵(괴음소선觅句筵)樓軒에는 묵객이 글씨를 쓰는 곳이고, 느티나무 그늘은 詩仙이 유희하는 자리로다.

今歲半過虛送去(금세반과虛送去)金陰如矢速流遷(광음여시속류전) 금년도 벌써 반을 헛되이 보내고, 金陰이 화살같이 빨리 흐름을 알겠네.